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힘찬 스타트 마린보이 박태환(SK텔레콤)이 22일 오전(현지시각) 2012런던올림픽 수영 경기가 열릴 올림픽파크 아쿠아틱센터에서 첫 훈련을 하며 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金 따러 왔다"

런던 입성 … "멋있는 세리머니 준비했다" 강한 자신감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던진 한국 수영의 대들보 박태환(23·SK텔레콤)이 드디어 격전지 런던에 입성했다.

런던올림픽을 대비해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지난 2일부터 3주간 막바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태환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다.

헤드폰을 귀에 끼고 편안한 반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박태환은 도착 일성으로 "2년간 많이 준비한 만큼 좋은 기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세계신기록 수립에 대한 기대감을 안겼다.

박태환은 곧장 올림픽 선수촌으로 이동, 분위기 적응에 들어갔다.

박태환을 전담하는 SK 텔레콤 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수영 연습이 필요한 날인데 바로 물살을 가를지, 내일로 훈련을 연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금메달 세리머니를 준비했느냐는 물음에 "멋있는 동작을 보이겠다"며 웃으며 말해 2회 연속 우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200m·400m·1500m 세 종목에 출전하는 박태환은 4년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자유형 400m에서 2연패에 나선 박태환의 최대 라이벌은 중국의 쑨양(21)이다.

두 선수는 400m와 1500m에서 양보 없는 일전을 펼친다.

키 198㎝의 장신인 쑨양은 남다른 신체조건을 활용, 지난해 1500m 세계기록(14분34초14)을 세우는 등 세계 정상권으로 올라섰다.

그는 내친김에 박태환의 주종목인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겠다며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박태환은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400m에서 잇달아 쑨양을 격파하고 우승했기에 호락호락 우승을 넘겨주지 않을 태세다.

마이클 볼(호주) 코치와 호주 브리즈번에 마련된 준비 캠프에서 훈련 강도를 끌어올린 박태환은 올림픽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몽펠리에로 자리를 옮겨 담금질을 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대회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훈련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힘을 비축하는 조정기간에 들어갔다.

볼 코치가 이번 올림픽에 호주 대표팀 코치로 참가하는 탓에 박태환은 볼 코치의 수영클럽에 속해 있는 토드 던컨 코치의 도움을 받아 올림픽을 준비해왔다.

볼 코치는 올림픽 기간 호주 대표팀과 함께 움직이지만 외곽에서 박태환의 훈련 프로그램과 전략 등을 매일 짜고, 이를 던컨 코치에게 전달한다.

박태환과 쑨양이 격돌하는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은 7월29일 오전 3시51분(한국시간) 벌어진다. /연합뉴스

"역도선수들 응원해요" 제30회 런던올림픽 역도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역도동호인들의 거리 응원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동호인들과 정광중·고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역기를 드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손연재 "결선진출 꼭 이룰게요"

올림픽 첫 출전 부푼 꿈 안고 런던에 도착

리듬체조 세계최강 러시아팀과 함께 훈련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첫 올림픽 출전의 부푼 꿈을 안고 런던에 도착했다.

이 종목 최강인 러시아 대표팀 선수들과 모스크바 인근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에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21일 오전(현지시각)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손연재는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경기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선수단의 훈련복을 입고 입국장에 들어선 손연재는 곧바로 러시아 대표팀과 함께 적응 훈련 캠프가 마련된 셰필드로 이동했다.

손연재는 "경기를 하려면 3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셰필드 훈련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그는 "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해왔다"면서 "끝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리듬체조 선수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신수지(21·세종대)에 이어 두번째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은 손연재는 국민의 많은 관심을 잘 안다는 듯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차 목표는 10명이 출전하는 개인종합 결선에 오르는 것"이라며 "결선에 오른다면 이후에는 후회 없이 연기를 펼쳐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연재는 올해 다섯 차례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대회에서 후프, 볼, 곤봉, 리본 등 4개 종목의 점수를 평균 27~28점대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네 종목 점수를 합산하는 개인종합 점수도 최하 108.325점에서 최고 112.200점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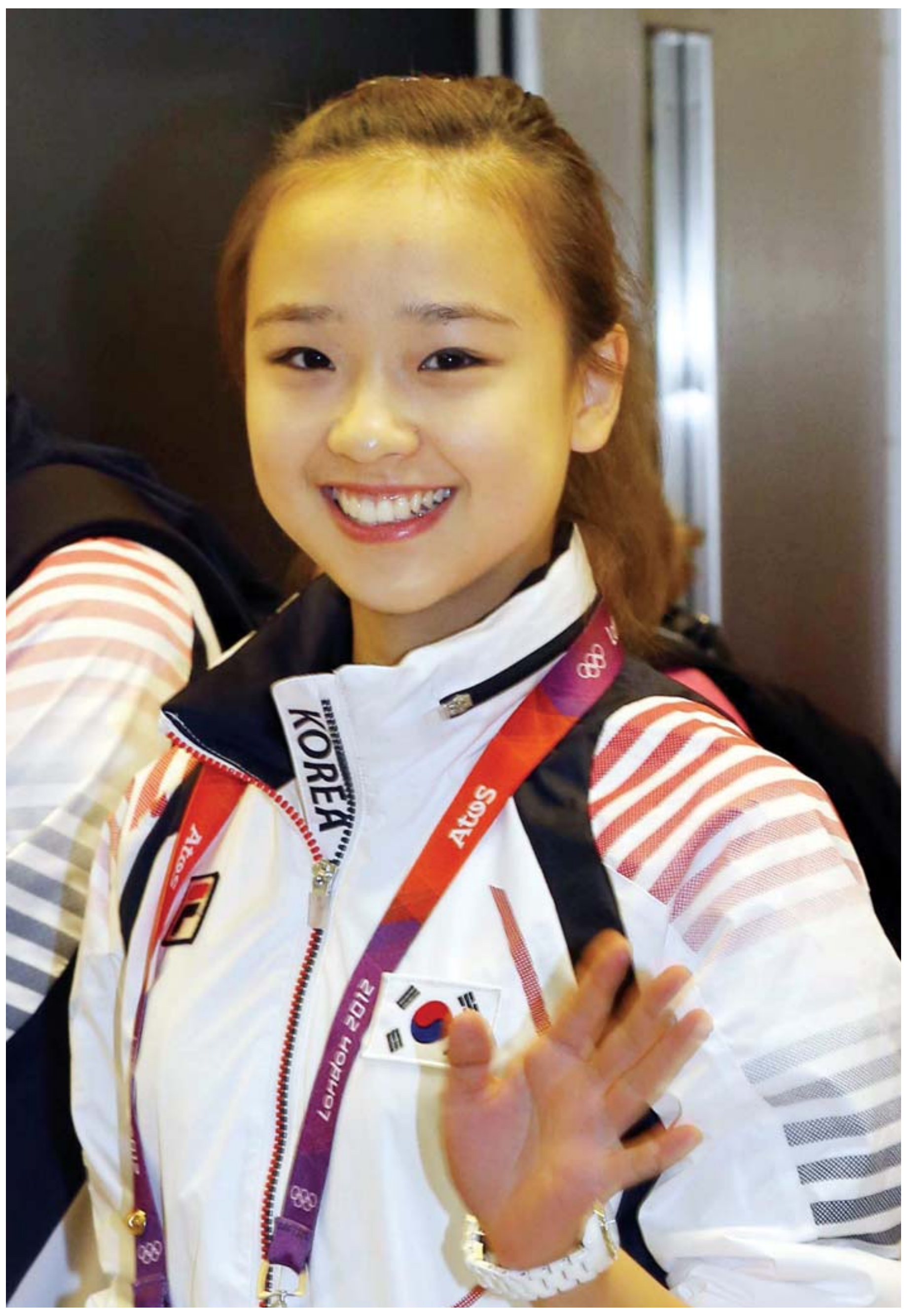
4월 러시아 펜자 월드컵 대회에서는 개인종합 순위를 4위까지 올리는 등 안정적으로 '톱 10'을 유지했다.

손연재는 올림픽 직전 리허설 성격으로 열린 벨라루스 월드컵 대회에서는 109.725점을 받아 개인종합 9위에 오르며 올림픽 본선에서 결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손연재는 남은 기간 실수를 줄이고 기술의 완숙도를 높이는 데 힘쓸 참이다.

손연재는 8월5일 런던으로 이동, 경기가 열리는 웸블리 아레나에서 컨디션을 조율한다.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은 8월9일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벌어진다. /연합뉴스



요정의 미소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21일 오후 영국 히스로 국제공항에 도착,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더기 金 기대하세요"

태권도 대표팀 첫 훈련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여자태권도 황경선 선수. /연합뉴스

2012 런던 올림픽을 위한 첫 현지 적응에 나선 태권도 대표팀이 무더기 금메달을 사냥해 한국 선수단 전체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세혁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런던 도착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각) 한국 선수단의 훈련 캠프인 브루넬 대학에서 첫 훈련을 치렀다.

아직 여독이 덜 풀린 만큼 선수단은 가벼운 훈련으로 감각을 찾는 데 집중했다.

67㎏급 황경선(고양시청)과 67㎏초과급 이인종(30·삼성에스원)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만 소화하며 몸을 추슬렀다.

남자부의 58㎏급 이대훈(20·용인대)과 80㎏초과급 차동민(26·한국가스공사)은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훈련 파트너와 각종 기술을 시험해 보며 몸을 풀었다.

가벼운 훈련이었지만 김세혁 감독은 모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을 시켜보며 주의 깊게 선수들을 살폈다. 김 감독은 "11시간 비행기를 탔지만, 우리는 4년 11시간을 달려왔다"면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오전·오후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왼쪽 무릎이 아팠던 차동민은 정상적인 몸을 회복했고 체중 감량으로 힘들어했던 이대훈도 컨디션이 좋다"면서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만큼 최고 성적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 金 9·9위

AP통신 전망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두고 각종 언론 매체와 연구 기관의 메달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AP통신은 한국이 금메달 9개를 따내 9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런던 올림픽 302개 세부 종목의 메달 수상자를 일일이 예상한 AP통신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9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해 금메달 수 기준으로 9위가 된다는 것이다.

양궁에서 남녀 단체전, 여자 개인전(기보배)이 금메달 후보로 꼽혔고,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 유도 남자 73㎏급 왕기춘(포항시청)과 81㎏급 김재범(한국마사회)이 금메달을 수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권도 여자 67㎏급 황경선(고양시청), 남자 80㎏ 이상급 차동민(한국가스공사)과 사격 남자 50m 권총의 진종오(KT)가 시상대 맨 위에 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금메달이 기대되는 남자 수영의 박태환(SK텔레콤)에 대해선 은메달 2개(400m·1500m)와 동메달 1개(200m)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환의 주종목인 400m와 1500m는 중국의 쑨양이 이길 것으로 점쳤고, 200m 우승은 미국의 라이언 록티를 우승후보로 꼽았다.

AP통신은 미국이 금메달 48개를 휩쓸어 37개의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뒤를 러시아(금메달 29개), 영국(25개)이 이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